

데스크 시각

광주·전남 상생 발전,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장 필수 사회부장

일이 무난하게 잘 풀려 나갈 때 흔히 ‘순항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순항하고 있다는 것은 격랑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더라도 높은 파도를 극복하고 다시 잔잔한 물결과 순풍 속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순항은 대체로 긴 항로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배가 항구를 떠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다할 위기를 만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화두인 ‘상생 발전’이 이런 형국이다. 윤창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상생 발전을 민선 6기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곧바로 10월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년이 지난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순

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짓기로 한 제2 남도고속은 설계에 들어갔고 얼마 전 치른 2015 하계U대회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고 성공 개최로 이끌었다.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와 에너지밸리 조성에서도 아직까지는 불협화음 없이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허 원장 논란에 순항 이상기류

상생 협력 과제 1호로 추진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도 이뤄졌다. 하지만 순항은 여기까지였다. 1년여 동안 공들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원장 임명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면서 순항 기류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중앙부대에 경험을 쌓은 중량급 인사를 원장으로 초빙하고, 시·도의회가 유례없이 공동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문제는 시도의회 부작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수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이 허성관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임명 과정도 이사회 개최가 아닌 간담

회 형식으로 진행된 데다 간담회 도중 참석 이사 일부가 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노출했다. 급기야 시도의회가 허 원장에 대한 효력정지기처분 신청과 함께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윤창현 시장의 발언에서는 견고하게만 보이던 시도 상생에 미세한 간극이 감지되고 있다. 윤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임 과정에서 광주시가 추천한 이사들도 일정 정도(임명불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은 시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견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공항 이전 해법찾기 관건

허 원장 임명 논란 해결이 광주·전남 상생호의 1차 관문이라던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상생 과제 중 최대 난제인 무안공항 활성화, 즉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순항 여부가 결정되기에 중요하다. 당장 이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피해 보상액이 줄게되면서 광산구 주민들의 군공항 이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북은 세만금에 신공항을 짓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광산구 주민들의 불만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일계점에 도달했다. 전북의 신공항 추진에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까지 가세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은 내년 초로 예정된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 열린 광주전남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이전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하자는 광주시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별도로 다루자는 전남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전략상,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뤄 두고 쉬운 과제부터 푸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에둘러 얘기하는 것보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광주공항 이전도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광주·전남 상생호의 순항은 결국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달려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해법을 내놓을 시기다.

社說

수능 코앞인데 전투기 훈련 꼭 이때 해야 하나

다들 말 초 광주 군 공항 주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간에도 훈련이 이어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심한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게다가 대입수험생 시험을 앞둔 시점이라서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한 미 공군과 우리 공군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광주 군 공항에서 한반도 전지 지속 작전 훈련을 실시한다. 수능시험(12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훈련에는 총 100여 차례의 전투기 이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전까지 광주 군 공항에서 훈련하던 F-5 전투기보다 엔진 추진력이 3배 정도 높은 F-15 전투기들이 24시간 잇따라 동원될 예정이다.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도 18회 훈련이 포함돼 주민들은 평소보다 훨씬 심한 소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여기에도 최근 대법원이 군 공항 소

음 피해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할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군 공항 소음피해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대규모 훈련까지 예정돼 주민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산구를 비롯해 지역 민사회단체와 정당까지 훈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어제는 민행대 광산구청장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군 측은 훈련 시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왜 탄력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는 걸까. 하필이면 11월 12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규모 훈련을 해야 하나냐는 것이다.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훈련 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군인들은 확실히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전남도 가뭄 영향권...내년 농사 미리 대비를

전국이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역시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액은 뒤늦었던 전남 지역의 저수율도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조짐이 좋지 않다. 전남의 누계 강수량은 1055.3mm(지난 21일 기준)로 지난해 1288.9mm 그리고 평년 수준인 1367.2mm에 크게 못찼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전체 저수율도 47.1%를 기록, 평년 75%에 비해 28%포인트 하락했다. 나주호·장성호·담양호·광주호 등 4대호의 저수율 역시 31.7%로, 이제 30%대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4대호의 평년 저수율 64.7%나 지난해 저수율 49.3%와 비교하면 요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담양호의 경우 현 저수율은 171만 1000t으로 계획 저수량(7667만t)의 23.1%에 그쳤다.

전남도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평년 수준인 42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전남 남부 지역을 제외한 중북부 지역은 내년에 가뭄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봄 5월까지의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악의 가뭄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영농에 대비, 저수지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의 경우 보성 신방 저수지 등 6곳에 22만8000t을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에 걸쳐 814만t의 용수를 확보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지자체들도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단계별 용수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 고



박 창 명 병무청장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남북간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경험하였다. 당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비 태세와 전력을 앞둔 장병들이 전역연기를 신청하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지켜보며 우리 장병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병역은 국가를 위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위기상황에서는 하나뿐인 생명까지 희생해야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의무이다. 이러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을 위해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과 불만을 덜어주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병무청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인 것이다.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히

병역이 자랑스러운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국가안보를 수행하는 병무행정에도 정부의 국정철학인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여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큰 원칙 내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행정편의주의적인 비경상적인 관행을 점검하고 관련법령 등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년도 규제정비 핵심과제로 ‘전면적·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 4주간의 교육소집(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편입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교육소집을 부과하여 본인의 업무일정 등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정업체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업무일정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거처도록 되어 있어 입원 또는 외래검사 등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신청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해야 했다.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7세인 것에 반해 동일 수업연한(6년)인 약학과의 경우 재학생 입영연기가 26세까지만 가능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약학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제한연령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최초 징병검사를 받고 4년 이내 입영하지 않은 경우 5년차에 다시 받아야 하는 재징병검사의 경우 지방병무청의 직권 통지에 따라 매년 11월중에 일괄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손질했다. 재징병 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 군별로(육·해·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모집병 선발을 위한 평가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군별로 별도로 모집규정이 정해져 있어 정보획득이 어렵고 각 군별 선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역의무자의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에게 규제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앴으로써 개방·공공·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병무청은 기존의 법령 등을 근거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닫힌 자세에서 벗어나 병역의무자와 병역의무자 가족의 입장에서 아주 사소한 규제까지 찾아내어 관련법령을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은펜클럽



임 명 재 약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자신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라 이름 짓고 창조경제를 통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료나 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창의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요,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취업보다는 창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국민의 의식을 조정하려 하지 말라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나름 그러한 철학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며 소위 창조경제와 같은 생각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각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몸으로 체험하여 기억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음에도 왜곡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던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하고 정권을 갖은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오로지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려 한다면 제 얼굴에 뺨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고 세 계지배를 위한 집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일인의 우수성을 날조하고 유엔 트라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어 일방적인 역사관과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데도를 주입하여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전쟁터에서 불발용을 가리지 않고 돌격하는 인간병기화 하와 교육을 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인들을 참혹한 전쟁을 겪게 하였고 독일민족은 패전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렇듯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사고를 하고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역사적 결과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이미 지구촌화 되어 있다. 언론을 통해 각국의 사건사고가 공유되고 있다. 언론이 아니라라도 개인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 나라 어떤 사람의 감정이 공유되고 있다. 아무리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하더라도 세계인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버웃고 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조선사람들을 강제징용하여 수탈했던 군함도 하시마섬을 등재하려 했을 때도 진실이 적용되었고 난징 대학살을 등재하게 할 때 극렬하게 반대해도 세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과 김부성대표는 교과서가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의 서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를 방관하였던 말인가? 교과서는 충분히 북한의 인권과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의 공과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최근 ‘암살’이라는 영화가

천만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이뤄냈다. 거기에는 친일파로 호의호식하는 자와 사익을 위해 변절하는 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을 묘사하고 있다. 교과서에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교과서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동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농민들이 수탈당한 것이 아니고 수탈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시각을 교과서에 실어야겠는지,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덮었다면, 일제치하에서 고문받고 군사독재시절에 탄압받았던 국민들의 고통이 아직 생생한데도 자신들이 서술한 교과서만 유일하게 공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깊은 우려와 의심을 갖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부성대표의 부진들의 경력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無等鼓

1950년대 후반 위작자로 이름을 떨친 영국의 ‘톰 키팅’은 20여 년 동안 총 121명의 유명 화가를 흉내 냈다. 전 세계 수집가에게 팔릴 지언 그림만 2천여 점에 이른다. 나중에 그가 밝힌 위작 리스트에는 마네, 마티스, 렘브란트, 드가, 모딜리아니, 들라크루아, 드랭, 밀레, 고야, 몽크, 르누아르, 루오, 루벤스, 세잔, 고흐, 로트레 등 대기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위작을 ‘섹스틴 블레이크’, 그리고 위작을 수역 원대를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작품이 위작자들의 먹이

1950년대 후반 위작자로 이름을 떨친 영국의 ‘톰 키팅’은 20여 년 동안 총 121명의 유명 화가를 흉내 냈다. 전 세계 수집가에게 팔릴 지언 그림만 2천여 점에 이른다. 나중에 그가 밝힌 위작 리스트에는 마네, 마티스, 렘브란트, 드가, 모딜리아니, 들라크루아, 드랭, 밀레, 고야, 몽크, 르누아르, 루오, 루벤스, 세잔, 고흐, 로트레 등 대기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위작을 ‘섹스틴 블레이크’, 그리고 위작을 수역 원대를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작품이 위작자들의 먹이

만드는 행위를 ‘섹스틴 블레이크’라고 불렀다. ‘섹스틴 블레이크’는 영국 유명 탐우는 소’나 최근 별세한 천경자의 ‘미인도’는 우리 화단의 위작 논란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얼마 전엔, 한국 화단에서 최고가를 기록 중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도 위작 유통 가능성이 불거졌다. ‘예술의 증가’를 자처하는 서구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풍부한 경제력으로 무장하고, ‘남다른 오리진’ 작품을 찾아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급증하면서, ‘위작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유명 화가들 가운데 위작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고관리서 등록번호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